



국제해사기구(IMO) 회람문서에 화재시험기관으로 등재

연구원은 3월 14일, 국제해사기구(IMO)으로부터 IMO 문서인 FP/circ.20(방화소위원회 회람 문서 20)에 FTP Code(화재시험절차 코드)의 화재시험품목 9개 중 4개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가능한 시험기관으로 등재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2000년 6월, IMO 국가인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연구원이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시험가능한 3품목을 추가로 등재시키기 위해 IMO에 추가시험품목을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의한 것이다.

이번에 등록된 시험품목은 기존의

① Part 3, A.754(18) A, B, F재 내화시험 외에 ② Part 4, 방화문 제어설비 일체, ③ Part 5, A.653(16) 선박용 격벽, 반자, 갑판의 마감재, ④ Part 6, A.687(17) 선박용 갑판의 마감재 등 총 4개 품목이다.

IMO문서는 전세계의 회원국가와 선급협회, 선박회사 등에 배포되며, 여기에 인정시험기관으로 등재된 기관에 한해서는 해당 품목의 화재시험성적서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업체가 외국의 인정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했던 시험 중 많은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선급시험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 15주년 맞이 기념행사

연구원은 4월11일 오전 11시, 개원 15돌을 맞이하여 연구원 강당에서 임원, 본부 부서장 및 연구원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상현 이사장은 “매우 어려웠던 대내·외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연구원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치하의 말을 전한다”고 하며, 연구원 임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세계 속의 시험연구기관으로, 21세기의 방재산업의 선두주자로 거듭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상현 이사장은 기념식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연구원 주변 및 시험·연구동을 순시하면서 개원 이래로 지난 15년 동안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본 후, 구내식당에서 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목구조의 내화성능에 관한 기술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5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목구조의 내화(耐火)성능에 관한 목구조기술세미나 및 공개실험”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구원 강당과 방내화시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경골 목구조의 내화성능’에 대해서 Peter Mazikins 미국임산물협회 기술이사가, ‘집성재 및 대형 목구조의 내화성능’에 대해서는 박문재 임업연구원 연구관이, ‘목구조의 설계기준’에 대해 이진제 서울대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임업연구원, 건설교통부 및 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 대한건축사협회 등 각 단체, 충남대학교 등 학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방내화시험장에서 실시된 목구조 벽 및 기둥의 내화성능 공개실험 참관하는 등 목구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에 개최된 기술세미나는 최근 우리



나라 전원주택 등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골 목구조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평가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목구조 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재시험연구원 제5대 원장 유은열 상무이사 취임

5월14일, 유은열 상무이사가 우리 연구원의 제5대 원장으로 새로이 취임하였다.

유은열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73년 한국화재보험협회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래 방재시험연구원 인증업무실장, 기획운영실장, 기술지원부장, 본부 위험진단부장, 기획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방재기술분야의 실력자로서 이경구 전 원장의 후임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이경구 전 원장은 연구원업무의 개발과 기술확대를 위하여 연구원 기술고문으로 위촉, 방재시험연구원의 각종 업무를 자문하게 되었다.

美 임산물협회와 '목구조 내화성능평가연구' 수행

6월 29일, 미국임산물협회(AF & PA, 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와 '경골 목구조 내화구조(輕骨 木構造 耐火構造)공법'에 대한 성능평가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시험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성능평가연구는 최근 우리 나라 전원주택 등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골 목구조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실험 화재실험 등을 통해 평가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목구조 공법에 의한 내화성

능이 확인될 경우에 KS규격 제정 등 내화성능 기술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목구조의 사용범위가 현재의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화재에 안전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목구조 건축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목구조주택의 화재보험요율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BS 뉴스 대형건물의 화재위험과 관련, 연구원 시험 장면 방영

8월 1일, KBS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촬영협조를 통해 대형건물의 화재위험에 대한 내용을 9시 뉴스에 방영하였다.

이는 협회에서 7월 30일 발간한「화재안전점검 결과분석」자료와 관련한 취재로, 연구원에서는 벽관통 케이블에 대한 화재시험과 스프링클러 장치 교육실습시설 실연 및 헤드 살수분포시험, 그리고 감지기 작동시험 등에 대하여 담당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촬영을 협조해 주었다.

이러한 시험장면은 방화시설 등의 불량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도움자료를 주었고, KBS는 보도를 통해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형빌딩의 미흡한 안전의식과 화재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경구 고문, 기술표준원 [리스크 평가기술전문위원회] 건자재분야 위원장 위촉

8월 27일, 연구원 이경구 기술고문은 기술표준원 소속의 평가기술전문위원회(건자재분야) 위원장



연구원 소식



으로 위촉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에 대한 기술요소별 평가를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에 내재된 리스크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요소별 및 리스크 평가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평가제도운영위원회와 분야별로 평가기술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위원회는 국내 학계 및 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경우 고문은 건자재 분야에서 위원장으로 위촉,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충격음차단성능평가 연구용역 및 산학연 학술연구용역 체결

연구원은 철골아파트의 바닥완충공법에 대한 충격음차단 성능평가 연구와 관련하여 (재)포항산업연구원과 8월 29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 두 달간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요구되는 거주공간 음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뜬바닥 완충구조공법 개발 기초실험연구로서 연구결과에 따라 보다 경제적인 바닥충격음차단공법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 시행 2001년도 건설기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콘크리트학회,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과 함께 8월 29일자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협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화재피해를 입은 고강도 및 일반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구조성능평가와 보수방법에 관한 학술연구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평가 등 새로운 업무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소방협회 관계자 연구원 방문

9월 5일,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쿠웨이트 대리점 현지 매니저와 함께 쿠웨이트 소방협회 (Kuwait Fire service directorate) 기술관 3명이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주)를 방문한 이들은 쿠웨이트 소방협회 기술관들로 자국 협회에서 건축 및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분야를 담당하며 엘리베이터 방화 도어에 대한 내화성능시험 시설 및 시험과정을 직접 둘러보고자 연구원 견학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먼저 연구원을 소개하는 업무안내 영문 슬라이드를 시청한 뒤 주관심 분야인 수직가열로 등 방내화 시험장치를 중심으로 여러 시험연구시설들에 대한 견학시간을 가져 우리나라 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방화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운영협의회 개최

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2001년 2차)의 일환으로 컨소시엄 운영 협의회를 지난 8월 29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는 우리 연구원의 [컨소시엄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중기청 컨소시엄사업의 개요, 경과보고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참여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상호 교환하는 자리로써,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씨플러스의 김영국 이사,



연구원 소식



(주)유타이엔지의 김영옥 이사, (주)이엔씨 TECH의 정병홍 대표이사, 한창전기(주)의 김동회 부사장, 동남정공(주) 이달형 생산부장, (주)한그린텍의 이병훈 이사, 삼공물산(주)의 신영삼 이사, (주)티에스의 김진업 부장 등 8개 참여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동 컨소시엄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컨소시엄사업 연구개발비의 현실화 및 기술자료·정보제공,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으로 제정하여 업체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차원의 노력을 해 달라는 참여기업 참석자들의 요청이 있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동 사업수행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권오승 부장, ISO/TC 21 (화재방지 및 소화장비)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

연구원의 권오승 부장(방재설비부)은 일본 치바현(千葉縣)에서 9월 10일~14일에 개최된 ISO/TC 21(화재방지 및 소화장비)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SC(분과위원회)별 국제규격 제정 작업 현황보고 및 SC2·SC3의 간사국 변경, 기타 TC21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이 SC2(휴대용 소화기)의 국제간사기관으로 선임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해외출장은 국제규격 제정분야에서 중추적 업무를 하는 국제간사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최신기술과 정보의 변화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세계 26개국 참가자들의 소방 관련 국제규격 제정작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

방기술의 국제적 변화동향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환경부 국책기술 [고강도 골조 암면패널의 성능 실험평가] 연구협약 체결

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환경부 국책기술사업인 [고강도 골조 암면패널의 생산장비 개발] 연구에 한국기계연구원과 위탁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시제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2년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건축용 단열재 폐기물인 폐암면 재활용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샌드위치패널에 실용화하여 폐자원의 활용과 환경공해방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암면폐기물의 처리비용절감과 샌드위치패널의 제조원가 절감으로 국내 200여개 관련패널 제조업체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위탁연구수행은 이미 2년 6개월간에 걸쳐 수행한 바 있는 폐암면소재 재활용관련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참여 등 그동안 축적된 연구원의 건축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성능실험평가기술의 노하우를 이용하게 되며, 우리 연구원은 이번 국책연구참여를 통해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건재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